



‘민생경제 긴급 대응 조례’...위기 극복 의지

한시적 특별조례 제정 추진
경제위기 상황 체계적 대응
도민 체감도 높이는 ‘장치’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민생 위기 극복 의지를 담은 특별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지난 11월 4일 제의했다. 조례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다.

이는 이상봉 의장이 제43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대책기구를 제안한 이후 설치된 ‘민생경제협력지원단’, ‘범도민 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등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법적 조치로써, 제주도의회와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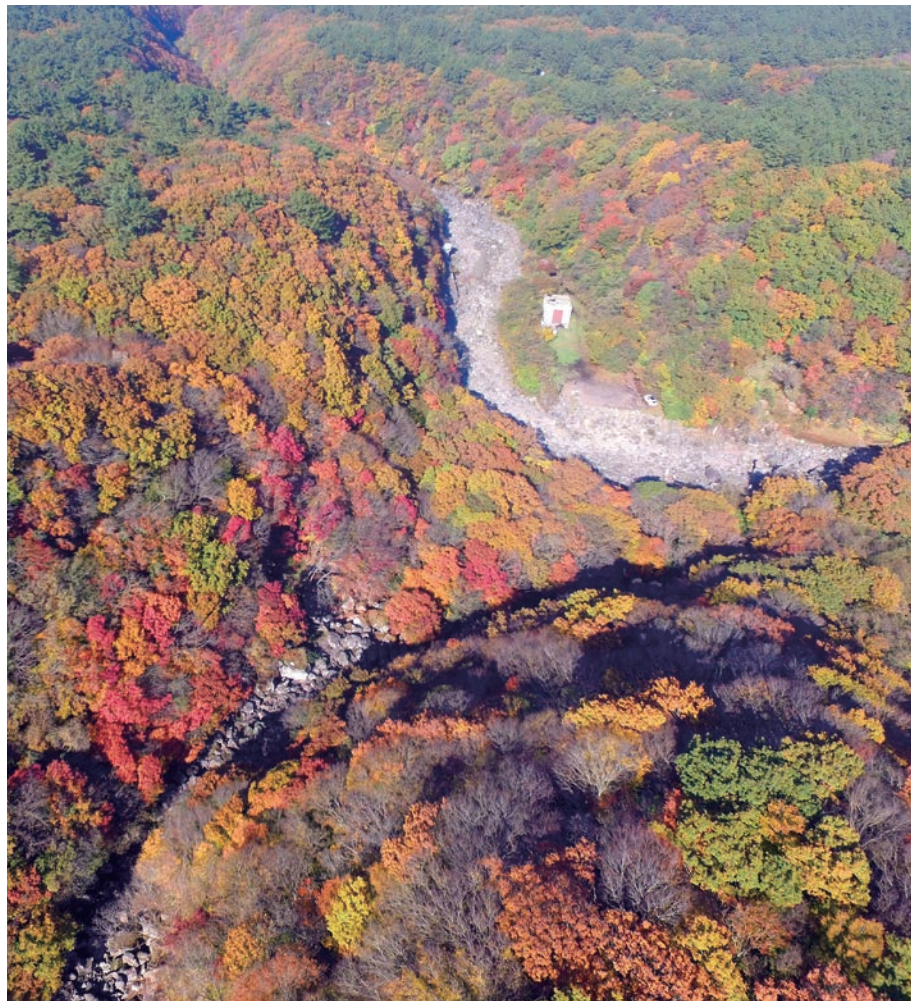
도가 공동으로 대응 기구를 구성해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도교육감이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물가 관리, 소상공인 지원, 각종 산업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범도민 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및 민생경제협력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 △도민 제안·참여 보장과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단의 운영 상황과 민생협력 과제 추진 실적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조항을 마련,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 및 활성화 대책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 중심의 민생의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적 장치”라며 “의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펼쳐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을 익어가는 천아계곡

유난히 길고 치열했던 여름 탓인지 올해 제주 가을은 차츰차츰 다가온다. 그 사정이야 어쨌든 어느 시절보다 뜨겁게 스스로를 태워 붉은 흔적을 남긴다. 예년에 비해 덜하게, 더디게 물들어도 단풍이다. 이 가을, 느릿하지만 절정을 향해 익어가고 있다.

유난히 길고 치열했던 여름 탓인지 올해 제주 가을은 차츰차츰 다가온다. 그 사정이야 어쨌든 어느 시절보다 뜨겁게 스스로를 태워 붉은 흔적을 남긴다. 예년에 비해 덜하게, 더디게 물들어도 단풍이다.

국비 확보, 소기 성과 ‘기대’

도의회·도, 국비확보단 결성
국회 방문해 공동 대응 나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2025년도 주요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

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비확보단은 지난 11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방문단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남원읍),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륜동), 제주도 오영훈 지사, 강재병 대변인,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양순철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87억 8,000만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50억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 20억 2,000만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 물류 운영지원 사업 5억원 △도로재비 산면지 저감을 위한 수소청소차 보급 지원사업 14억 4,000만원 △공공 공연예술 연습장 추가 조성사업 30억원 등 총 11개 사업, 약 36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비, 수소청소차 보급, 공연연습장 확충 사업 등이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국비 확보에 기대감이 모인다.

이번 방문에서 이상봉 의장은 “지역 하수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설을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라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과 제주 4·3평화기념관 시설 확충에도 당 차원의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면안내

2~3

의회 주요 이슈

4~6

생생 의정 활동

7

함께 합시다

8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생 회복과 삶의 질 높이는 밑거름 돼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이상봉 의장, 개회사 통해
예산안 심사 각오 밝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
내수 경기 활성화 시급

“추가 국비 확보 위해
도의회도 힘 보탬 것”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시작한다”라며 “본예산 심사를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보면, 1년 동안 벌이는 어떨지 가늠해 보고, 1년 동안 어떤 일에, 얼마나 돈을 써야 할지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매해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많은 의원이 떠올리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라며 “어떤 정책이 도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이 더 시급한지,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예산은 낭비 없이 책정

되었는지를 묻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이자,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라며 “예산은 도민의 일상에 녹아들어 민생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밑거름

이 돼야 한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실질적 필요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지,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농부가 정성스럽게 씨앗을 고르듯 예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도가 대 중앙 협력을 통해 사상 최고 금액인 2조 65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이어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민과 어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며, 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부터 저감 대책, 피해 복구, 보상·보험 체계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은 성산읍’...농·어업 분야 민생탐방·소통 나서

이상봉 의장 6번째 민생행보
지역 농어민 단체 등 간담회
“건의 사항 수렴, 반영 노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의 민생경제 활력 해법 찾기 여섯 번째 행보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향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양홍식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등이 동행해 현장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들었다.

먼저 어업 분야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산포수협을 방문했다. 성산포수협 고관범 조합장, 성산포어선주협회 오종실 회장, 성산포수협어촌계장협의회 정성조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획량 감소 대응 방안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은 △성산포수협 시설 공사 지원 관심 △어선어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외국인선원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E-8비자



검토 △수협에서 관리 중인 해양폐기물 집하장 운영의 행정시 이관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 단속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농업 분야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찾은 성산일출봉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는 성산일출봉농협 강석경 조합장 직무대행, 농협 산하 월동무연합회 강동훈 회장, 당근연합회 정운정 부회장, 한라봉공선회 오원용 회장, 레드향공선회 김경호 회장, 천혜

향공선회 고민호 회장, 키위공선회 신태범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뢰 가능한 키워드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예산 편성 △기후변화 R&D 예산 편성 확대 통한 선제적 대응 △보수사업만 편성되어 있는 FTA 대응 사업을 확장해 보강 사업도 대상으로 편입 △열과 피해 자연재해 인정 지원 △성산지역 농작물 저온저장고 확충 지원 △농업

용수 시설 확충 등을 주문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건의해 주신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건의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표방하며 도민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간담회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역 고령화 해결...청년 목소리 공유

도의회·지방자치학회
대학생 정책 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가 공동으로 지난 11월 15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제12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 지역 대학생들과 제주도의 고령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포럼에 앞서 제주도 내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경제적 및 의료·돌봄 지원 정책, 문화적 필요성 등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 안정’과 ‘건강 관리’를 꼽았고, 이를 위해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과 의료·돌봄 지원 서비스, 여가문화 제공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연결해 포럼에서는 관련 주



제 발표와 대학생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민기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고승완·신하늘·양예진이 발표자로 나서 제주도 고령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성준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수현(제주관광대학교 호텔관광과 2학년), 박정빈(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2학년), 이지현(제주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임제현(제주대학교 식물자원환경 전공 4학년), 신수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4학년), 김민건(제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4학년) 학생이 참여해 제주 지역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대학생들의 의견들은 제주 지역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포럼이 미래 리더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제주도 내 정책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 의견 수렴 자문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는 지난 11월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운영 및 정책 추진 방향,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한 과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연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홍인숙 위원장은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 지역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정책토론회,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정책 기초 설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의회 활발한 입법 활동 ‘계속’

지역사회 현안 해결 중점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가 11건 통과됐다.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과밀학교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청소년부모 및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용료 감면액은 산후조리 비용의 50%로 청소년 산모 및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는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모듈러 교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해녀 육성 및 지속 가능한 해녀 어업·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상봉 의장은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건설환경, 도민 이익 위해 중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건설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지역 건설산업 문제 등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원내대표 송영훈, 남원읍)이 ‘환경미화원 현장 체험’에 이은 두 번째 민생탐사로 ‘건설인과 함께하는 민생경제 활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5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송영훈 원내대표 및 양경호(노형동갑)·김대진(동홍동)·한동수(이도2동) 의원,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김기춘 회장 등이 참석해 제주 지역 건설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주 지역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목소리를 듣고 향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심각한 제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춘 회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 협조 △제주특별법 건설 분야 지역기업 추대 기준 특별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확대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안전 제고 △도로·상하수도공사 등 발주 방식 전환·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 단축 등 7가지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송영훈 원내대표는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건의 내용들은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의 완전한 수습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이상봉 의장 및 의원
사고 현장 상황실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9일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이남근(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한림읍 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 및 참석 의원들은 상황실 관계자로부터 구조 및 수색 작업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를 당한 선원과 유가족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색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지원과 자원 투입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봉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와 수습 작업에 임하고 있는 해양경찰, 소방서, 도청 등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며 “힘들지만 이번 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

식, 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상황실을 방문해 실종자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제주-지방 협력 거버넌스 필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서
분권 강화 방안 논의 이뤄져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이 지난 11월 21일 제주현호호텔에서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열린 세션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부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간의 지방시대 정책 현황을 발

표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필요성,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종합 토론에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건일 제주도 지방시대위원장, 임정빈 성결대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 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 정책은 국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해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양한 지표에서 성장을 이뤄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 따른 추가 사무 및 특별행정기관 사무에 상응한 재정 수단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권 구현 과정에서의 재정 수급 불일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실천을 전제로 해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간 협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조천읍)와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협회(회장 김덕홍)는 지난 11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복지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 방

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일본자폐증스펙트럼학회 하카리노 고이치로 이사는 가정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제시했다.

이어 김덕홍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체육수업을 해온 경험을 화두로 꺼내며 “그동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해오면서 실패는 없었다. 성

공할 때까지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사회를 맡아 일본의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현황, 인식 개선의 방법, 발달장애인 체육 교육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지홍 의원은 “사례를 들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민구·김기환·양경호 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을 비롯해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양경호(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 의원은 지난 11월 23일(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의원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증앙회가 주최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정명 의정대상’으로 불리며 7회째를 맞았다.

공정하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광역시·도의회 및 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유권자증앙회, 정명대상조직위원회, 유권자포

럼 등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의 허파이자 환경의 보고인 꽃자왈을 보전하는 정책들이 빈틈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라며 “맡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좋은 평가로 이뤄져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양경호 의원은 “도심지 교통 압력 분산, 주차난 해소 및 보행로 확보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제12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다듬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도민의 삶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이라는 평소 의정 철학이 의정활동과 정책에 녹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김기환 의원, 영예 안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지난 11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광역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지방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상, 지역 리더로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의 입법 활동 성과로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 사례가 꼽혔다. 조례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제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원칙과 공정의 가치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병 서비스 제도화... ‘우수사례’ 꼽혀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회서 행정부장관 표창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상 수상 사례는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간병의 사회화, 제주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정의 등 정책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통해 제주형 간병 서비스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이용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간병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



가와 국민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주 지역 특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안 과정 전문가 강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11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 및 실무 검토’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법률과 조례의 의안 발의, 심사, 공포 등 처리 절차와 단계별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전문가 초청 직무 연찬을 통해 의회 전 직원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도의회 자치입법 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체육발전연구회

홍인숙 대표의원 연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체육발전연구회가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했다.

체육발전연구회는 지난 2022년 9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제주 체육 정책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에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이 연임 결정됐고, 부대표에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이 선출됐다.

홍인숙 대표의원은 “지난 2년간 체육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을 하면서 파크골프 활성화, 스포츠 관광 등 지역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면서 “연임의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도 체육 정책과 관련해 보다 앞선 의제 발굴에 더욱 노력해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방향 모색

제주사회적경제포럼
10월 25일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민간 판로 확대 방안 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사회적기업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연구 등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남근 의원은 “제주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주형 민간 판로 확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연구결과를 활용해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미 부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관광객이 많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크루즈 등 관광산업과 연계할 방안,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등에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 현안 머리맞대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한국노총지역본부 간담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지난 11월 5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지역 노동자들의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봉 의장은 “노동정책 관련 부서와 실무적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연구포럼 의원뿐만 아니라 소관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경호 대표의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도 내 노동 현안 관련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노동 정책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양홍식,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국제대학교 김의근 교수가 연구용역 최종 발표에 나선 데 이어 양홍식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홍식 대표의원은 “크루즈 관광 수용 태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최근 야간에 크루즈가 정박하면서 이에 따른 관광 효과가 기대되므로, 지역 주민과 연계한 크루즈 야간 관광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 점자 회의록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4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점자 회의록(책자)을 별도 제작, 도내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문화정보점자도서관 등 장애인 지원 시설에 보급한다.

점자 회의록은 지난 2월과 3월에 개의된 제424회, 제425회 도의회 임

시회에서 다뤄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을 점자체와 일반 글씨체를 혼용해 제작됐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회의록시스템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및 주요 사안을 선별해 점자 회의록으로 제작, 장애인 지원시설에 보급해 오고 있다.

농수축경제분과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연동갑)는 지난 11월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농수축경제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431회, 제43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결

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현안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들이 제안해 주신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시대, 감귤농업 지원 강화돼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
정부·도·농가 노력 필요

제주의 감귤 농업은 반세기 동안 제주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추운 겨울, 청정한 자연환경을 머금은 제주 감귤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강 과일이었다. 지난 1997년 7월 이후, 우리 농산물 시장이 자

유화되고 제한된 보조 정책으로 인해 불리해진 가격과 감귤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제들과의 경합에도 불구하고, 감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들과 행정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이제는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 감귤 산업의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의 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병해충의 증가와 생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생산성과 감귤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 감귤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라 제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감귤 농업이 우리 제주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자 도민들의 생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해충 방제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문제는 감귤 농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병해충 발생의 증가는 고스란히 생산비용 증가와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서 병해충 방제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감귤 농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술 및 인프라 지원이다. 감
귤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프라 지
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감귤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농가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감귤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제주 감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다. 기후변화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감귤 재배 적지가 육지부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감귤 농업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도, 감귤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항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합니다.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벌, 징계, 불합리한 행정책임에 대한

책임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제주의 리더... '일일 도의원' 체험 나서

하례초·아라중·재릉초
모의의회 의정체험 참여
도정·교육행정 질문 등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에 도내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하례초등학교 학생 9명이 지난 11월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일 도의원'으로 나섰다.

이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 토론 및 표결, 3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3분 자유발언에서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 쓰레기 분리배출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도의원과의 만남'에서는 강충룡 부의장(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배워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늘 응원한다"고 밝혔다.

11월 6일에는 아라중학교 2학년 학생 18명이 체험에 나섰다.

참가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기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가', '청소년의 음주, 흡연 문제에 대하여'를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이 이날 함께 자리해 "오늘 체험을 통해 경청과 토론의 자세를 배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제주 미래의 리더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릉초등학교 학생들도 '일일 도의원' 체험으로 본회의장을 채웠다.



원' 체험으로 본회의장을 채웠다.

11월 8일 재릉초등학교 6학년 34명은 도의원 및 지사, 교육감 역할을 맡아 심사 보고와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을 직접 진행했다.

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함께해 "오늘 의정체험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돼, 미래 제주의 리더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조언을 남겼다.



제주도의회, 올해의 SNS '종합대상'

유튜브 부문 종합대상
활발한 소통 높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0회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 부문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SNS'는 SNS를 통해 활발한 소통에 나서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활용 현황을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알

기 쉽게 전달하고,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도의회 공식 유튜브는 최근 3년간 유튜브에서 발생한 조회수가 급증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조회수는 36,159회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174,354회로 전년 대비 약 4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이어 2024년에는 247,829회로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의원이 '스토리텔러'로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여 활약

하는 한편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인 것으로 주목받았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관심 두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며 제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로 디지털 소통 창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문별 종합대상은 올해의 유튜브 부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의 블로그 부문 여수시청 관광과, 올해의 페이스북 부문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인스타그램 부문 하이트진로가 수상했다.

"소중한 생명 살려요"

11월 공감·소통의 날
연동119센터와 소방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6일 대회의실에서 '11월 공감·소통의 날'을 진행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행사는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이해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과 함께 실시됐다.

이날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협조 아래 심폐소생술 강의·실습, 옥내 소화전 사용법 교육, 화재 시 긴급 대피 훈련 등이 이뤄졌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소방 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월 결혼식장에 방문했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20대를 구한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 양기훈 정책연구위원과 김지희 주무관에 대한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